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15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이 배석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홍보국

원행 스님 "한국불교 발전 주춧돌 놓겠다"

1월 19일 신년회견서 종무 기조 · 핵심 과제 등 발표

코로나19 예방 위한 비대면 방식
백만원력결집불사 종단역량 결집
기후위기 · 남북교류 등 사회현안
승가공동체 · 신행확산도 주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매진하는 한편, 차별없는 세상과 남북화해, 기후위기 극복 등 대사회적 현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한 종단적 ·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점 종책과제 및 종무행정 기조를 밝혔다.

이날 원행 스님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었다"고 지난해를 축약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사찰의 법회 중단과 산문폐쇄, 연등회의 전격적인 취소 등 불교계 모든 일상이 멈추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한편으로,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받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신축년 새해 주요종책 방향성으로는 종단적 발전을 토대로 한 한국불교 견인을 꼽았으며, 동시에 사회와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는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종단 주요 불사의 가시적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전과 보건소 건립불사(20201년 준공) △세종시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건립불사(올 9월 상량식) △불교 요양원 건립불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설계(연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불사(11월 착공식)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불사(2월 착공)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예경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등재 후 올해 처음 열릴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북불교교류, 기후위기 극복, 차별금지법 제정 등 대사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의지, 그리고 대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승가공동체 육성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남북불교 교류협력 또한 멈춰버린 시계 앞에 진일보하지 못한 재 팽팽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며 "어려운 경색국면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조선불교도연맹과 긴밀한 협의로 방역물품 지원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단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발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올해는 불교환경의제 21 선포 15주년을 맞는 해"라며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대 확산은 인간과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외면한 채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해 왔던 결과"라며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예방과 치료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또다른 감염병이 인류와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회 역량 확대를 위해 역량있는 승가공동체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스님은 "출가수행자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불교 사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교육교재 개발을 통해 수행의 공덕이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비우고 내려놓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존재를 평등한 본성으로 인식하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등 영상 프로그램으로 공유,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키워드로 본 신년기자회견 2면〉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공론화 되나

법인이사회의 감사서 지적
건학이념 강화위원회 설립
불교대학 문화재학과 신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산하 기관 내 건학이념구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월 1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3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서울캠퍼스 · 경주캠퍼스 · 의료원 등의 중간 감사 보고를 받았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이전을 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감사 원명 스님은 "현재 경주캠퍼스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수업의 일부나 전체를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BMC)에서 관련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주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학교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수요에 따른 학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역과 상생하겠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캠퍼스 이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보고를 통해 건학이념 강화를 위해 법인 및 산하기관에 '건학이념구현위원회' 설치도 공론화했다.

원명 스님은 "임용까지는 신행생활을 평가하지만 임용 후 인사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의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학이념구현위원회를 법인 및 산하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이사장 성우 스님은 "감사 보고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 답변서를 작성해서 차기 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주문하며 내부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법인 사무처에 상시적 감사 제도를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불교대학 내에 문화재학과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불교대학 문화재학과는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정원 15명으로 2022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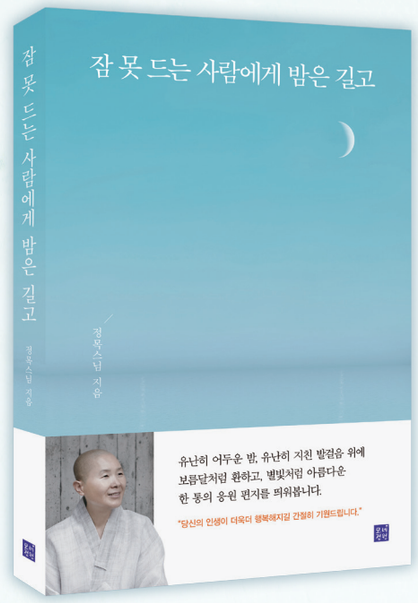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